



미 증시, BOE의 QE 조치, 달러 강세 완화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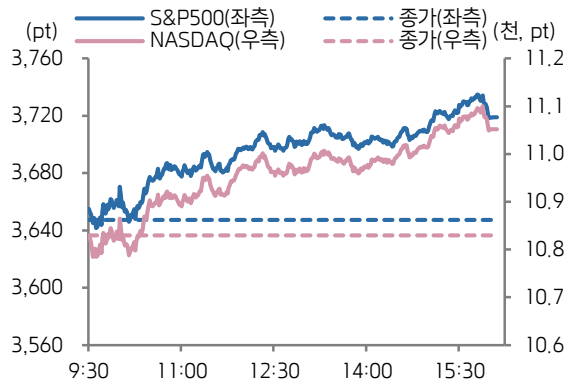
28일(수) 미국 증시는 BOE의 장기국채 매입 발표로 영국 국채 금리 급락 및 파운드화 안정된 영향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달러 강세 완화되며 상승 마감 (다우 +1.88%, S&P500 +1.97%, 나스닥 +2.05%).

영국 중앙은행(BOE)은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따른 긴급 개입으로 9월 28일부터 임시적으로 규모에 제한없이 장기영국국채 매입하겠다고 발표.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길트를 최대 50억 파운드 규모로 10월 18일까지 단기적으로 매입할 예정. 시장에서는 BOE가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안도감을 가지는 한편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이후 QT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 정책 발표 이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를 기록한 후 3.7%대까지 급락, 2년물 금리 역시 4.1%대까지 하락.

미국 MBA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신청지수는 전주 대비 -3.7% 하락하며 전주 3.8% 대비 하락 전환. 집계측은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기조와 MBS 매입 등 양적 긴축으로 모기지 이자 변동률이 확대되었고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 8월 미결주택매매는 전월대비 -2.0%(예상치 -1.4%, 전월치 -1.0%) 감소하며 4월 이후 최저치 기록. 미국 8월 도매재고는 전월대비 1.3%(예상치 0.4%, 전월치 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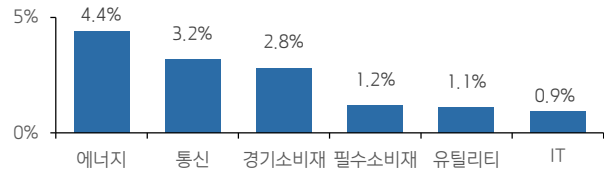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4.4%), 통신(+3.2%), 경기소비재(+2.8%)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IT(+0.9%), 유틸리티(+1.1%), 필수소비재(+1.2%)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 대비 하락하고 허리케인 영향으로 WTI가 상승한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 반등. 전일 아이폰 14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생산량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초반 애플(-1.27%) 3%대 급락을 보이고 애플 관련 부품주들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하며 IT 섹터 역시 반등. 바이오젠(40.0%)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3상 임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헬스케어 섹터 반등을 주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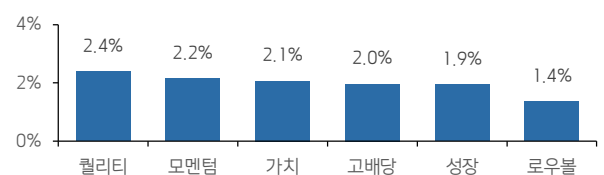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19.04	+1.97%	USD/KRW	1,440.88	+1.27%
NASDAQ	11,051.64	+2.05%	달러 지수	112.70	-1.23%
다우	29,683.74	+1.88%	EUR/USD	.97	-0.01%
VIX	30.18	-7.42%	USD/CNH	7.16	-0.05%
러셀 2000	1,715.24	+3.17%	USD/JPY	144.10	-0.04%
필라. 반도체	2,427.26	+1.2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457.13	+2.5%	국고채 3년	4.335	+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330	+12bp
Eurostoxx50	3,335.30	+0.2%	미국 국채 2년	4.135	-14.8bp
MSCI 전세계 지수	565.81	+1.09%	미국 국채 10년	3.731	-21.4bp
MSCI DM 지수	2,438.78	+1.4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75.85	-1.8%	WTI	82.15	+4.65%
MSCI 한국 ETF	49.36	+0.3%	금	1670	+2.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6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422.7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반등, 주요국 시장 금리 급락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외국인 수급 불안 완화 여부 3. 증시안정펀드 관련 뉴스플로우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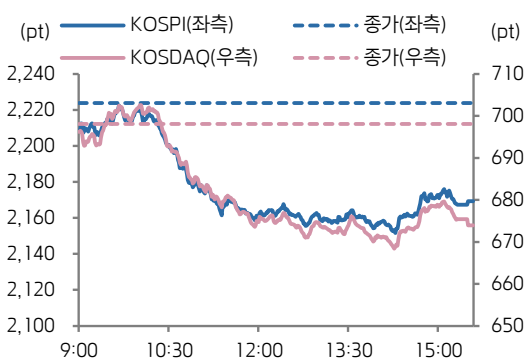
애플의 아이폰 14 증산 철회 관련 뉴스플로우로 인한 주가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축,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소비 둔화 우려는 점증하고 있는 이로 인해 증시에서도 펀더멘털 상으로 빠른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아닌 금융 측면에서는 BOE,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추가적인 불안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 최근 파운드화 가치 폭락으로 달러화 초강세를 유발해 전세계 주식,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전이 시켰던 영국발 금융 불안은 28 일 BOE 가 시장 안정 목적으로 양적긴축 연기(10 월 31 일로 연기) 및 한시적인 양적완화(~10/18 일) 시행하면서 시장에 반전의 계기를 제공한 상황. 물론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등 긴축 모드에 돌입한 BOE 의 이 같은 결정이 모순적이며, 실효성 및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는 함.

그러나 펀더멘털이나 시장의 컨센서스와 무관한 수준의 급격한 가격 변화가 연출됐던 자산시장의 패닉 현상을 진정시켰던 것만 자체로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금번 BOE 시장 개입으로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 결정을 천명했던 연준 역시 9 월 CPI 결과를 보고 정책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 시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현재의 지수 레벨에서는 주식 비중 축소 대응을 지양하고 데이터를 확인해가면서 보유 혹은 비중 확대 작업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애플발 악재, 영국발 금융 불안, 노드스트림 1,2 폭파 소식 등 대내외 악재 확산으로 폭락하여 연저점을 재차 경신(코스피 -2.5%, 코스닥 -3.5%). 금일에는 장초반 개인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낙폭과대 인식 속 환율 급등세 진정(현재 역외 -18 원), BOE 정책발 주요국 시장 금리 급락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IT,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 등 전거래일 급락세가 컸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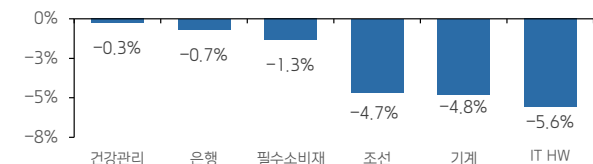
한편, 최근 국내 증시 폭락세가 심화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증시안정펀드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990년 5월, 2003년 1월, 2008년 11월, 2020년 3월 등 과거 4건의 증시안정펀드 출범 당시 주식시장도 V자 반등을 연출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반등의 동력은 증안펀드 뿐만 아니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완화정책이 영향이 컸음. 현재는 고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부양책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 과거와의 차이점인 만큼, 실제 증안펀드 가동으로 V자 반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다만, 기술적 및 밸류에이션 지표상 역사적 하단에 근접해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지수 하단을 지지 혹은 하락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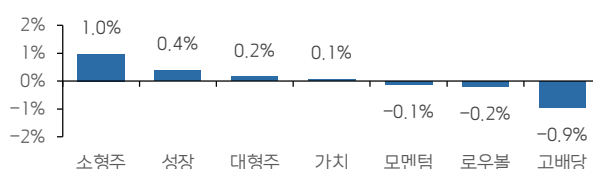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